백련사 동백숲·다산초당·청자박물관·마량 토요음악회

봄 주말여행은 '남도 답사 일번지'로

강진군, 각종 프로그램 준비

"'남도 답사 일번지'인 강진으로 봄철 주말여행을 떠나자."

초·중·고 학생들의 주5일 수업이 본격화 되면서 가족단위 주말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강진군이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다.

강진의 대표적인 봄철 여행지는 백련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51호)를 비롯해 다산초당, 주작산(朱雀山), 청자박물관, 마량 토요음악회 등 다채롭다.

9917㎡ 면적에 달하는 백련사 동백나무 숲은 7000여 그루의 동백나무에서 붉게 핀 동백꽃이 땅에 떨어져 시뻘겋게 땅을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동백숲을 빠져나와 야생차밭을 지나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산초당을 만날 수 있다.

다산유물 전시관 뒤편에는 79명이 육필로 다산의 명언을 써서 세운 '다산 정약용 말씀의 숲'이 조성돼 있다. 백련사~해월루~천일각~동암~다산초당~다산유물전시관 코스는 도보로 2시간(왕복 3.4km)이 소요된다.

올해 '전국 100대 산림경관지역'으로 선정된 강진 주작산은 진달래 명산으로 등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주말 여행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강진 청자박물관 '토요경매'와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온누비호 선상체험'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토요경매에서는 1300도로 구운 소장용 고려청자를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경매 30분전에 전통방식에 의한 물레시연과 조각체험 행사를 펼쳐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마량항 바다위 상설무대에서는 오는 4월 7일 올해들어 첫 토요음악회가 열린다.

4월 2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4차례 온누비호 선상체험도 할 수 있다.

한편 강진군은 ▲제15회 전라 병영성축제(4월 20~22일) ▲제4회 만덕산 백련사 8국사 다례문화제·주한 외신기자 초청 템플스테이(4월 21~22일) ▲제7회 영랑문학제(5월 4~5일)를 개최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화순군 나무심기 화순군 공무원 400여명은 지난 27일 도곡면 효산·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제6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소나무와 산벚나무 등 2000그루를 식재했다. 화순군은 올해 총 180ha에 39만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다. 〈화순군 제공〉

수질오염량 해소 총력

나주시, 총량관리 TF팀 구성·운영

나주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제 1단계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사업의 허가제한 조치와 관련, 짧은 기간내에 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제한조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2500여 축산농가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뇨 퇴비화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삭감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영산강 유역환경청, 국립 환경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염량 삭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행중인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조기 완공과 추가 저감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최근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의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2013년 하수관거 사업과 마을하수도 등 8개소 사업비 172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오염원의 확산방지 대책으로 ▲나주시와 축산협회 대표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율협약 체결 ▲가축사육두수 제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사 신·증축 제한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신광제 나주시 환경관리과장은"나주시의 초과된 오염량은 당초 2181.9kg/일이었으나, 지난 1개월간 노력한 결과 삭감량 인정후 현재 1352.9kg/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장흥 향우들에 고향의 봄나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채취해 250명에 보내

장흥군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채취한 봄나물을 향우에게 보내 고향의 따뜻한 인심과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장흥군 관산읍사무소는 최근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250여명의 향우에게 봄나물을 보냈다.

관산읍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천관산 기슭에서 쑥·냉이·봄동·취나물·불미나리 등 다양한 봄나물을 채취한 후 정성껏 손질해 발송, 향우들의 호응을 얻었다.

봄나물을 받은 향우들은 "타향살이에서 잠시나마 고향의 포근함과 잊고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문호 관산읍장은 "봄나물 보내기 외에도 지속적으로 고향소식을 향우들에게 전해 전국에 장흥 군정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수자원공사 등과 MOU

장흥군이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유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강신대 유치면장, 고영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관리단장, 강경일 정남진 장흥농협 조합장, 각 마을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면 친환경농업 확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면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관리단, 정남진 장흥농협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지원 ▲판로 개척 및 홍보 ▲친환경농업 활성화 ▲장흥댐 수질보호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성 '나무은행' 효과 만점

공공 사업장에 1500그루…조경예산 3억5000만원 절감

장성군이 운영하는 '나무은행'이 도시녹지 확충과 조경예산 절감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 중 보전가치가 있거나, 조경수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묘포장에 옮겨 심어 일정기간 관리로 수형을 조절한 후 공공용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각종 공공용 사업장에 나무 1500그루를 식재해 조경예산 3억5000여만원을 절감했다.

군은 황룡 행복마을과 홍길동 테마파크, 동화 웰빙랜드, 삼계면 사창리 수변공원 등지에 이식하는 등 각종 도시녹화 사업의 조경에 이를 활용했다. 군은 올해에도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우량 수목이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각종 공공용 사업의 추진에 따라 조경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로 우량한 조경수를 생산해 적재적소에 식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 북

"방음벽 농작물 일조 방해"

환경분쟁조정위 … 익산 농민 420만원 배상 받을 듯

고속도로변 방음벽이 농작물의 일조를 방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도로 방음벽의 일조방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났다며 익산 농민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익산시 왕궁면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는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생긴 불투명 방음벽 때문에 도로 인근 농지에서 재배중인 고추의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났다며 67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농지는 방음벽에서 1~10m 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겨울철 오전 일조 방해율은 평균 22~66%, 고추생육기(5~10월)의 오전 일조 방해율은 평균 36~66%로 나타났다.

농작물 전문가는 고추의 탄소동화작용은 70~80%가 오전 중에 이뤄지므로 고추 생육기의 오전 중 일조방해는 고추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추모 생산량 감소 및 고추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 주체가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방해라는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항 물동량 증가세 지속

2월 316만5000t … 지난해 보다 7% 늘어

선박 부품업체 가동률↑ 원재료 수입 증가

군산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항의 2월 물동량은 316만5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5% 증가한 5만2587대를 처리했으며, 일반화물 처리실적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43만t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늘고 있다.

품목별 물동량 증가 요인으로는 대중국 수출입 화물 가운데 옥수수(35%), 슬래그(60%), 광석류(12%), 고철(110%), 철강류(6%), 비료(2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사료회사들이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 되는 품목을 생산·비축하기 위해 지난 겨울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다 고철 및 철강류는 현대중공업 이전에 따른 선박관련 부품생산 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며 원재료의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물동량 증가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화주 등을 대상으로 포트 세일, 신규항로 개설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베트남 공무원들 남원 방문 베트남 동탑성도 라이봉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남원을 찾았다. 이들은 남원시청과 새만금 시설 등을 방문하고, 남원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1박 2일 '순창 고추장투어' 오세요"

순창군, 6월부터 시행

버스 1대 80만원 지원

순창군은 '2012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순창 고추장투어'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당일 또는 1박 2일형의 '순창 고추장투어'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18일 '순창 고추장투어' 운영을 위해 (사)전북도 관광협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광협회는 신뢰도가 높고 인정할만한 국내여행 실적이 있는 관광 전문 여행사 위주로 참여 여행사를 선정하고, 관광상품은 전북 관광협회와 참여여행사가 개발하게 된다.

관광상품은 여행사에서 개발한 후 순창군이 승인한 상품으로만 운영 가능하도록 하며, 순창지역 테마관광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해 당일 또는 1박 2일 여행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당일여행인 경우 버스 1대당 35만원을, 1박 2일인 경우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고추장 투어에 전문가이드를 배치하고 관광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둠은 물론 일반관광객 유치에 당일관광의 점유비율, 사업목적 달성 비중도 등을 분석해 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산지유통 종합계획 농식품부 공모 선정

정읍시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국비 40%·지방비 30%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집하장·선별기·저온 저장시설·예냉시설·전처리시설 등 산지유통시설 구축과 함께 원예 브랜드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전북도 공모에 선정된데 이어 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 종합계획' 1·2단계 평가와 최종 공개 발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생기 시장은 "산지유통 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복잡한 농산물 유통체계가 통합 마케팅체제로 전환돼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고품질 농산물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전통시장 활성화 … 5곳에 시장매니저 배치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이 전통시장 매니저로 활동한다.

전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동문상점가, 군산시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 종합시장, 남원시 공설시장 등 5개 시장에 시장매니저를 배치해 운영한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정부지원사업 계획 수립,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유통·행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의식, 판매기법, 친절서비스, 점포경영기법 등도 교육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둘레길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웰빙 걷기

익산시 보건소는 '가족건강도시' 사업 일환으로 올해 6차례(상반기 3회·하반기 3회)에 걸쳐 '둘레길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웰빙 걷기'를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4월 함라산길 ▲5월 강변포구길 ▲6월 미륵산길에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9월 미륵산길 ▲10월 용화산길 ▲11월 함라산길에서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첫 행사는 4월 14일 함라산 입구(숭림산 한증막)에서 출발해 임도를 따라 걷다가 4.5km지점인 야생차 북한계 군락지를 기점으로 되돌아오는 총 9km구간에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시 '워킹 스쿨버스' 5개 초등학교로 확대

정읍시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지도를 위해 지난해 정읍 남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워킹 스쿨버스'를 올해 5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

워킹스쿨버스는 등·하굣길 방향이 같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지도자들의 보호 아래 단체로 등·하교 시스템이다.

시는 28일 정읍고등학교 앞 시기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정읍경찰서와 동신초등학교, 동신사랑교통봉사 학부모회와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농협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발대

남원시는 16개 수출업체와 수출생산단체(농협)와 공동으로 28일 '남원시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파프리카·배·멜론·포도·쌀 등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4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만두·음료·우동·차·홍삼·쌀가공식품·전통주·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가공식품업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해외시장에 맞는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특산물 수출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